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 문봉주 대사의 '새벽형 크리스천'중에서

이 글은 목회와 신학 자료실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목회와 신학 - <http://www.durano.com/moksin/default.asp>]

성령을 받기 전에 내가 꽤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웰링턴에 있는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었다. 되게 젊은 분이셨는데, 나는 그 목사님이 정말 못마땅했다. 이거는 해도 너무 한다 싶었기 때문이다. 주일날 설교 30분만 하면 다른 목회 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 심방 한번 다니시는 걸 못 봤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비록 평신도였지만, 대사라는 공직에 있으면서도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전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수나 국회의원이나 기자나 누구든지 간에 대사관저에 와서 저녁을 함께하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었다. 정식 목회자가 게다가 저렇게 젊은 분이 나보다 게으르고 열정도 없다니... 나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고개를 내젓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1:6)”,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요한일서 2:9)” 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면서 늘 이 말씀을 들려주었다.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말로는 늘 그랬지만 내 속으로는 그 목사님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옳다고 생각했다. 잘못은 그 목사님이 하신 것이니까 말이다. 그때는 성령을 몰랐었다. 성경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그 목사님이 제일 가슴에 걸렸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성령님은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셨다.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치부를 드러내서 내 눈앞에 펼쳐 보이셨다.

“네가 속으로 우습게 본 저 젊은 목회자한테 무릎 꿇지 않고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새벽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게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맞다, 아무리 말씀을 딸딸 외운다고 한들,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깨달음이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껏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내가 제일이라는 형편없는 믿음의 온도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그 젊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 주세요...”

이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자신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까지는 몰라도 내 교만한 영혼이 박살났다는 것쯤은 아셨을 것이다. 나를 뜨악하게 바라보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눈물이 내 얼굴을 뒤덮었다. 목사님도 울음을 토해 놓았다. 그렇게 목사님은 나를 붙들고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해 주셨다.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속으로 얼마나 더 울었는지 모른다.

사실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몸을 내던져서 한 교회를 섬겼는데, 얼마나 몸을 돌보지 않았던지 그만 폐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잘 돌봐 주지 않아 상처만 입은 채 그 교회를 떠났다고 했다. 열심히 일해 봤자 소용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뉴질랜드에서 몸이나 간수하자는 심정으로 한국을 떠나오셨다고 한다. 나를 만났을 때는 그분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조그만 교회 목회자라는 열등감과 한국 대사라는 고위층 인사가 열심을 내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얼마나 많이 눌러 있었을 것인가. 그 목사님이야말로 말도 못하고 그 속이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분의 상태는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정말 판단하는 일은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말씀에 순종하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하시는 음성을 들려 주셨다. 그 다음부터 나는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더욱 열심히 양들을 먹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었을 때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임을, 이런 것이 바로 변화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예수의 사랑이 나를 뒤흔들 때 이제까지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순종임을 알았다.

- 문봉주 대사의 ‘새벽형 크리스천’중에서